

INCHEON AIRPORT MAGAZINE

MORE & BEYOND

2022 MAY+JUNE
Vol.81

공항은

예

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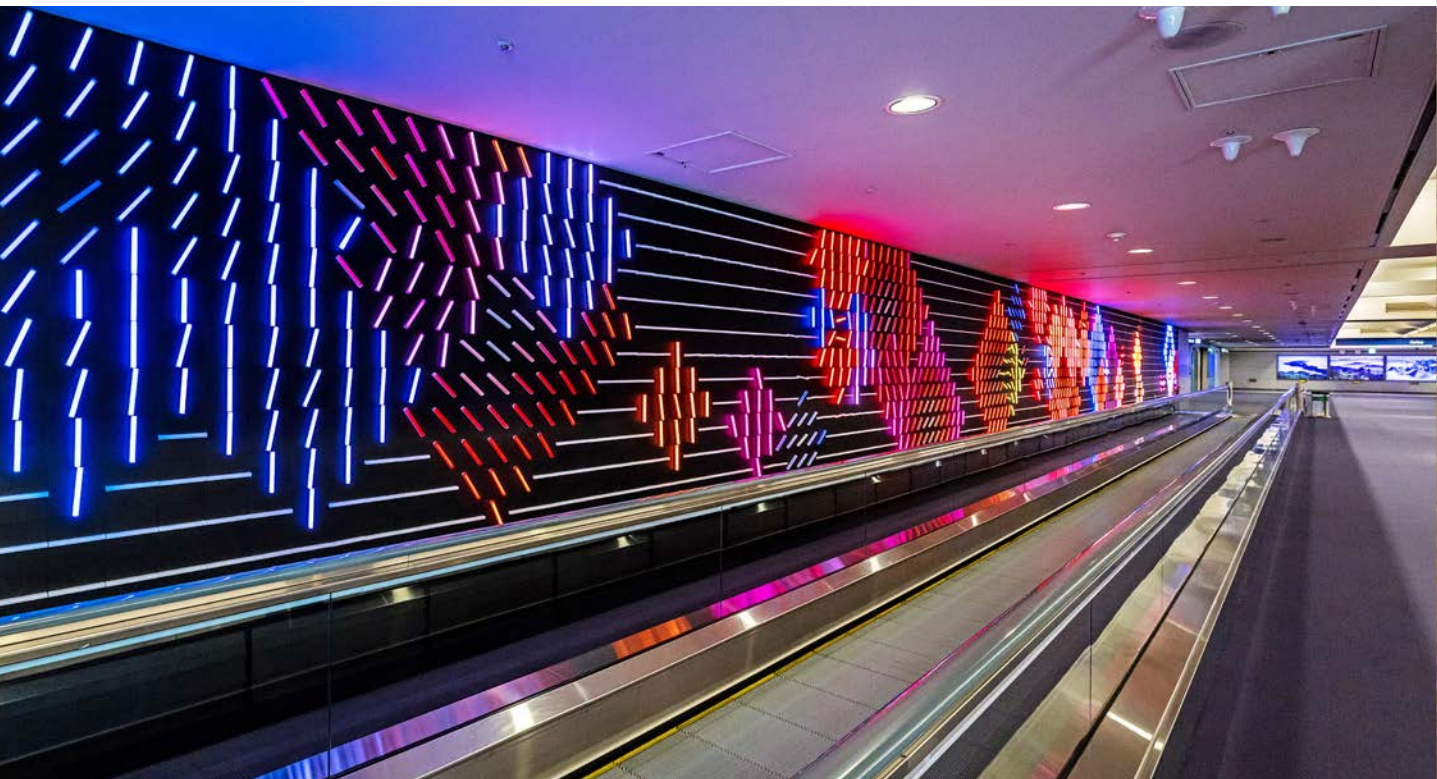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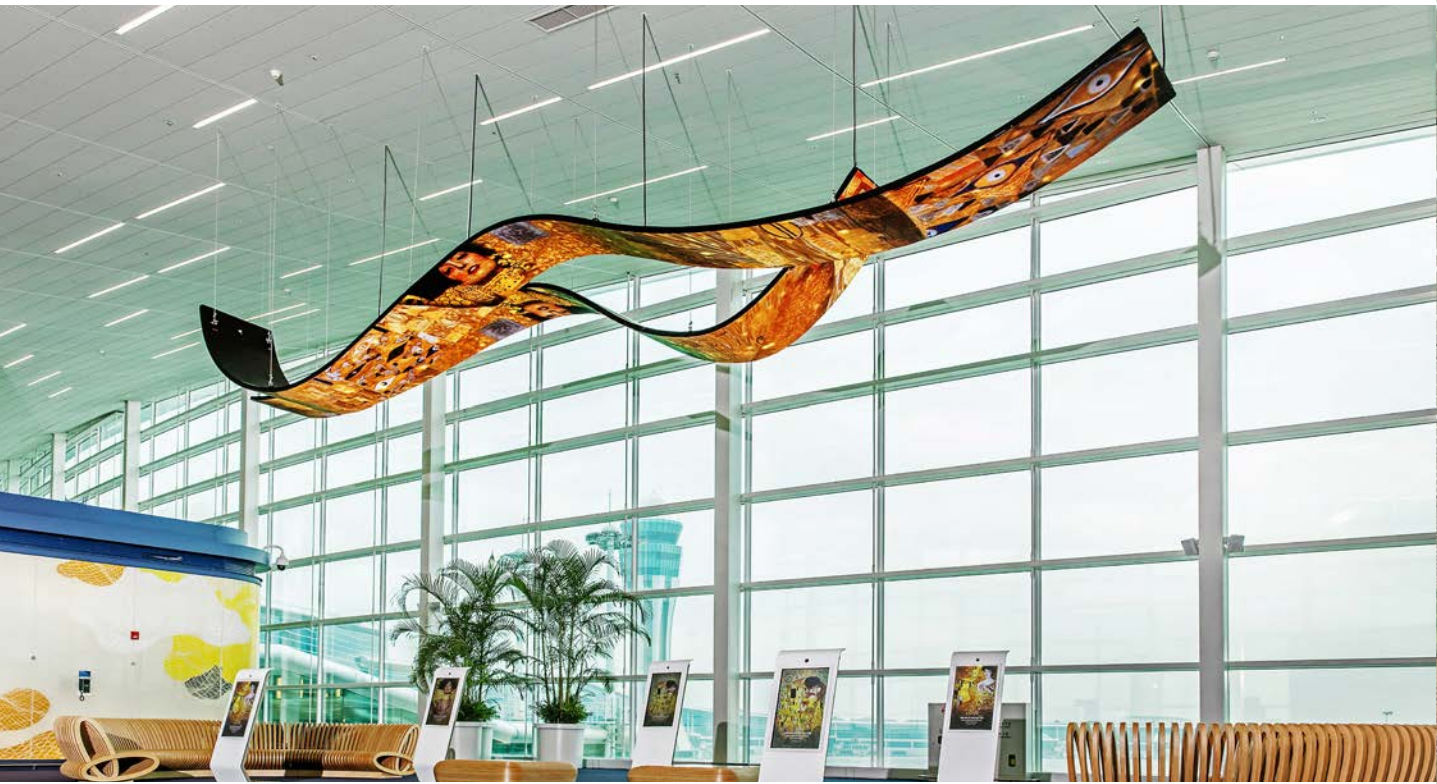
이다

언제나 상상 그 이상이
펼쳐지는 공항은
새로운 문화의 근원입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위대한 예술 세계가
펼쳐지는 공간

그리하여
누구나 머무르고 싶은
공항입니다.





‘헬로’하고
다정한 인사를 건넵니다.

한글과 자음 모양의 오브제가
1,000개의 다채로운 빛을 발하며
이방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시간의 흐름과 빛의 순환을 담아
공항을 찾은 모든 이의 삶을 환대하며
경험하지 못한 예술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예술을 입은 공항
갤러리가 된 공항
인천국제공항입니다.



CONTENTS

MORE&BEYOND
2022. MAY+JUNE
VOL.81

PLUS I CULTURE&LIFE

08
ESSAY
높고 높은 마음들

12
TRAVEL
HOLA!
SPAIN

20
PEOPLE
세 개의 눈으로 행복을 그리는
아티스트 노보(novo)

26
LIFE STYLE
똑같은 거 말고 특별한 거!
득템력

30
TREND
신세대의 원조 X세대 부활!
엑스틴(X-TEEN)이즈 백

34
CULTURE
한국인이 사랑하는 화가
<에바 알머슨 특별전: 에바 알머슨,
ANDANDO>

38
SPACE
자동차 복합문화공간
BMW 드라이빙 센터

42
HEALTH
무해한 하루를 보내는
일상 속 '제로 웨이스트'

44
TEST
잘 맞아서 소름 돋는
색깔 심리테스트

PLUS II AIRPORT ISSUE

46
LIVE
공항 속 작은 공원

50
AIRPORT PEOPLE
낮선 삶의 틈에서
나를 찾아가는 여정

54
INDUSTRY
기술혁신이 바꿀 공항과
항공산업의 가치혁신

58
ISSUE
인천국제공항, 다시 날다
공항 운영 정상화를 위한 힘찬 날갯짓

62
ONE AIRPORT
친환경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인천공항에너지(주)

66
SPOT
COVID-19 FREE AIRPORT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70
TIP
문화와 하늘을 잇다
찾아가는 공연

72
SENSE
비행기의 이정표
웨이포인트(Way Point)를 아시나요?

74
NEWS

78
EVENT

79
EPILOGUE

인천국제공항 매거진
MORE&BEYOND
2022. MAY+JUNE / VOL.81
격월간(비매품)

등록번호 인천중, 바00008
발행처 인천국제공항공사
발행인 김경욱
발행일 2022년 5월 2일
담당부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홍보실 032-741-2115
기획·디자인 및 제작
승일미디어그룹 1800-3673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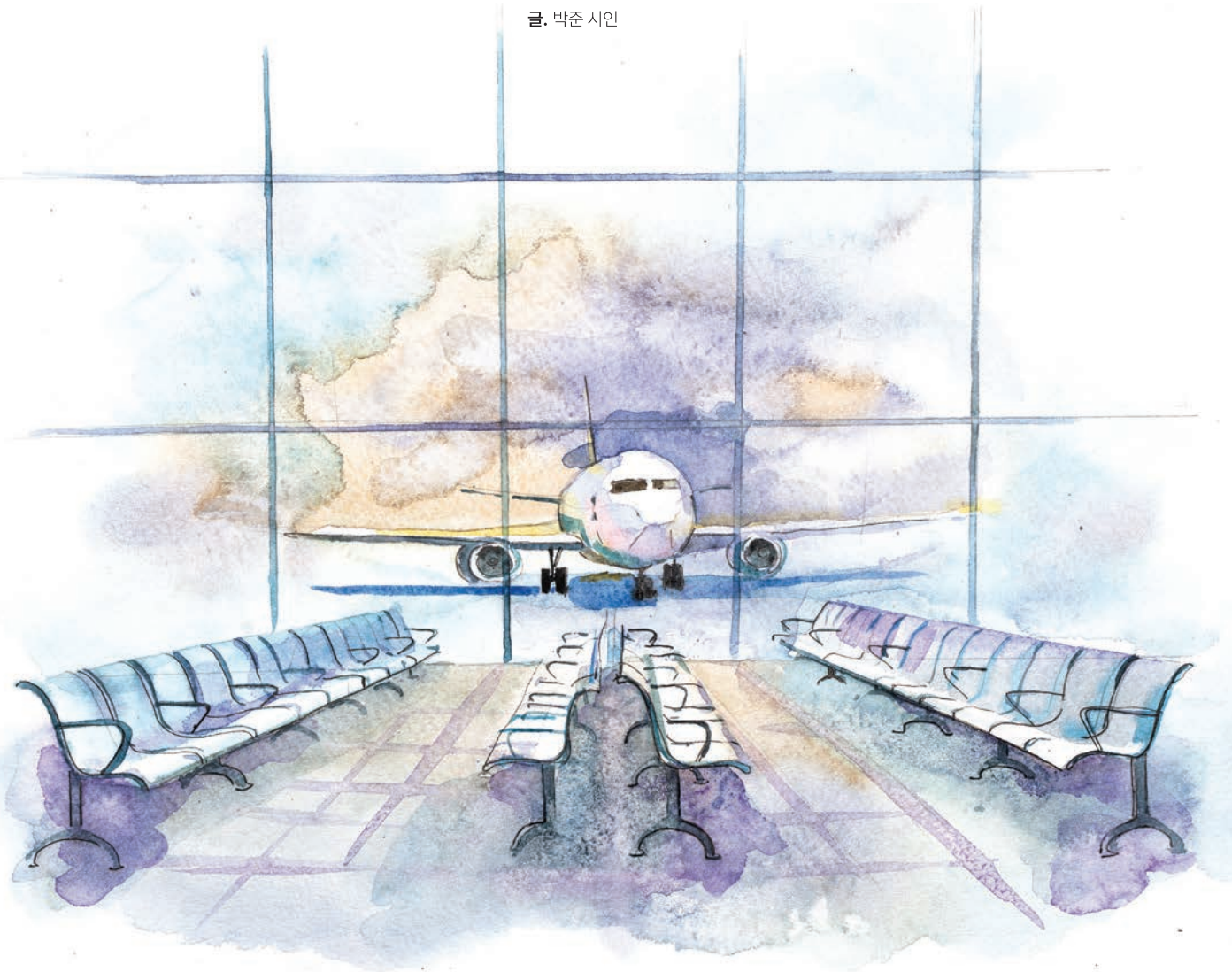
*본 간행물은 FSC 인증을 받은 종이와
공기를 잉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높고 높은 마음들

“2022년 오늘, 다행스럽게도 다시 공항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부디 더 많은 마음들이 이곳에 모이기를,
그 어떤 불안도 없이 이 마음들이 높아지기를 희망합니다.”

글. 박준 시인



#마음 하나

공항으로 향할 때 제가 품고 있는 마음은 설렘입니다. 이 설렘의 힘으로 그동안 제 삶에 있었던 많은 약속들 중에서도 가장 철저히 시간을 지켜왔습니다. 항공기 출발 시각으로부터 두 시간 반 혹은 세 시간 전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출발 시각이 정해져 있는 KTX를 타야 할 때 저는 보통 숨이 턱 끝까지 찰 정도로 내달린 끝에 1분 혹은 2분 전 객차에 오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올라탄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차의 문이 닫힐 때에는 이상한 쾌감과 희열까지 느낍니다. 물론 이런 버릇 탓에 눈 앞에서 기차를 놓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공항에 갈 때 만큼은 제가 더없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하나 더 품고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공항에 도착하면 배가 고파질까요. 집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도 왜 벌써부터 한식이 그리워질까요.

#마음 둘

설렘이 아닌 마음으로 이곳에 갈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쉬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커다란 아쉬움의 힘으로 저는 제 삶에 있었던 많은 약속들 중 가장 철저히 시간을 지켰습니다. 떠나는 것은 그이지만 떠나보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니까. 그가 떠나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떠나보내는 일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 일찌감치 공항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탑승 수속이 시작되면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고 그는 제가 갈 수 없는 구역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으레 저는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뒷모습을 봅니다. 내 곁에 없는 그를 있다고 생각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를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 시간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 셋

생각해보니 설렘도 아쉬움도 없이 공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살던 동네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행신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상행선이 끝나는 지점이자 하행선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지요. 참고로 자유로 초입의 북로분기점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종종 운전을 하던 제가 집으로 가는 차선 대신 공항으로 가는 차선으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한 날,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도 무거운 생각들에 짓눌리게 되는 날, 이런 날이면 어김없이 저는 잘못된 차선으로 들어서고 아차하는 순간 이미 방화대교를 건너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쉽게도 당장 돌아갈 수 있



는 길은 없습니다. 청라쯤 가야 요금소가 나오고 요금을 낸 이후에야 회차를 할 수 있지요. 일 년에 두어 번 정도는 이런 잘못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언제 한번은 요금소에서 차를 돌리지 않고 공항까지 달렸습니다. 주차를 하고 여객터미널로 들어가 커피도 한 잔 샀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한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공항의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술한 마음들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연히 찾게 된 공항에서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동안 다음과 같은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삼 느낀 것이지만 비행기를 타는 사람만 공항에 머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곳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배웅하는 이들이 있지요. 짐을 들어주고 여행가방을 끌어주고 조곤조곤 끊임없이 당부의 말을 건네는 이들. 저는 배웅을 마친 그들이 혼자 남아 한동안 여객터미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또 공항에는 누군가를 마중 나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도착을 알리는 전광판에 시선을 가져다두고 하염없이 눈을 깜빡이는 사람들.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초조하게 서성이는 사람들. 그러다 어느 순간 시선을 멀리 두고 가장 환하게 웃어 보이는 사람들.

#공항 TMI(Too Much Information)

개항(開港)이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한자 그대로 뜻을 풀면 항구를 열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항구는 선박이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부두 등의 시설을 갖춘 곳입니다. 이어서 공항(空港)이라는 말도 짚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의 항구, 그렇다면 항공기는 하늘을 떠가는 배라고 불려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이름 짓기는 낯설고 새로운 것을 맞닥뜨렸을 때 인간이 보이는 공통적인 습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동안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것에게 이름을 붙여야 하는 순간, 이때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중 가장 비슷한 것을 꺼내들기 마련이니까요. 미확인비행물체, UFO(Unidentified Flying Object)를 목격한 사람들이 비행접시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또 동네에서 종종 마주하는 노랑 털을 가진 어린 고양이를 제가 개나라라 부르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이 땅에 공항이 처음 생긴 것은 1916년의 일입니다. 10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지요. 첫 번째 공항은 서울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비행장이라 불렀고 1953년에야 국제공항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58년 김포공항으로 기능이 이전되었고 이후 2001년에 지금의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합된 것이지요.

제가 살아보지 못한 과거의 시간을 늘어놓는 까닭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저에게는 오래 전의 기록과 신문 기사를 찾아보는 취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과거 일간지의 한쪽 지면에는 그날 그날 공항에 대한 정보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출입국한 사람들의 명단과 출입국 목적, 항공편을 적어둔 것입니다. 당시 공항을 이용하는 이들은 대부분 000사절단으로 구성된 정부 관료, 해외 공연을 목적으로 한 연예인, 국제 경기에 나서는 스포츠 선수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러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개항이 시작된 것이지요.

생각해보니 제가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에 간 것은 2020년 2월 28일의 일입니다. 코로나19가 막 국내에 퍼지기 시작한 때였지요. 그때 보았던 인천공항의 풍경이 잊히지 않습니다. 황량할 정도로 한적한 모습. 그리고 2022년 오늘, 다행스럽게도 다시 공항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부디 더 많은 마음들이 이곳에 모이기를, 그 어떤 불안도 없이 이 마음들이 높아지기를 희망합니다. ☺

글쓴이 박준은 CBS 음악FM <시작하는 밤 박준입니다> 진행자이다.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계절산문』을 출간하였으며, 신동엽문학상, 오늘의젊은예술가상, 박재삼문학상, 편운문학상을 수상하였다.

HOLA! SPAIN



그때는 몰랐다.

내 삶이 이렇게까지 흘러갈 줄은.

고등학생 때 방과 후 들렀던 동네 서점에서 우연히 스페인 건축가 가우디에 관한 책을 발견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 나는 그 책을 구입했고, 그걸 시작으로 점점 스페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내가 스페인을 테마로 한 책방을 운영하는 것이 운명이 아니면

무엇이 운명이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스페인 이야기다.

글. 에바 스페인책방 운영자





어딜 가도 눈부시고 찬란한 햇빛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알게 되었지만, 그 후로도 꽤 오래 스페인은 책과 영상 속에만 머물렀다. 서른이 되어서야 직접 본 스페인은 그야말로 환상이었다. 손으로 만져지고 실체가 있는 환상. 책에서만 보았던 가우디의 건축물들, 에메랄드빛으로 반짝이는 바다, 미로처럼 좁고 구불거리는 골목, 골목을 가득 채운 오래된 건물들과 미술관, 활기차면서도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사람들….

매력적인 것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가장 내 마음을 사로잡은 건 다름 아닌 햇빛이었다. 마음속 어두운 구석까지 닿아 바짝 말려줄 것같이 눈부시고 찬란한, 그러다 해질녘이면 온통 오렌지빛 하늘을 선사하던 그 햇빛. 같은 꽃과 나무도 스페인의 햇빛을 거치면 훨씬 더 선명해졌다. 생명력 넘치는 햇빛은 자연에만 그치지 않고 그곳의 사람들에게도 활기를 주는 것 같았다. 여러 번의 여행을 통해 스페인에서 만난 거의 모든 사람들

은 참 잘 먹고, 잘 웃고, 차고 넘칠 만큼 다정했다. 나도 그 다정과 활기를 닮고 싶어서 어떤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원에 오래도록 앉아 햇빛을 쬐기만 했다.

끊임없이 새로운 맛, 따빠스

배가 고파지면 근처 아무 식당에나 들어가 따빠스(Tapas)를 먹었는데, 혼자서도 여러 가지 맛을 볼 수 있는 따빠스는 홀로 여행하는 이들에게는 종합선물세트 같았다. 따빠스는 특정한 음식이 아니라 어떤 형태를 통칭하는데, 주로 손바닥만 한 접시에 소량 덜어 주는 음식 혹은 바게트 빵 위에 각종 재료를 올려 만드는 음식을 말한다. 보기에는 투박하고 단순하지만 맛은 그렇지 않다. 기본 재료가 신선하고 훌륭하기 때문이다. 작은 접시 혹은 바게트 빵 위에 어떤 재료를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 수십, 수백 가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
 해질녘이면 온통 오렌지빛 하늘을 선사하던 그 햇빛.
 같은 꽃과 나무도 스페인의 햇빛을 거치면 훨씬 더 선명해졌다.
 생명력 넘치는 햇빛은 자연에만 그치지 않고
 그곳의 사람들에게도 활기를 주는 것 같았다.
 ••

1. 발렌시아 해안 도시
2. 발렌시아 대성당
3. 세비야 스페인 광장에서 댄스 플라멩코
4. 따빠스를 파는 스페인 식당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설렘의 장소

스페인을 엄청나게 좋아한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다 보니 '스페인의 어디를 가장 좋아하냐', '어디를 추천하고 싶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스페인이라면 어느 구석의 시골 마을이라도 마냥 좋지만 한 나에겐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다.

도시 자체는 작지 않으면서 해변에도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을 원한다면 바르셀로나나 발렌시아, 해변이 예쁜 작은 규모의 도시를 원한다면 네르하나 산 세바스티안 같은 곳이 좋을 것이다. 독특한 풍경을 보고 싶다면 론다, 스페인에 남아 있는 이슬람 건축의 정수를 보고 싶다면 그라나다나 꼬르도바를 추천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스페인스러운 스페인을 느끼고 싶다면 세비아도 빼놓을 수 없겠다. 이미 여러 번 스페인을 다녀왔거나 마

음이 어지러운 이들이라면 스페인 순례길도 괜찮은 선택일 것이다. 모두가 잃어버린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800km의 긴 길을 걸으면서 적어도 단순한 생활의 기쁨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삶을 지탱해주는 마드리드 공원

한국 여행자들이 재미없는 도시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수도 마드리드는 수도만의 매력이 있다.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만큼 편의시설과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골목 구석구석 숨어 있는 서점, 미술관, 클럽이나 독특하고 힙한 가게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미술에 관심이 있다면 미술관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가장 유명한 세 개의 미술관 외에 소로야 미술관에 꼭 들러보기를 추천한다. 시간이 여유롭다면 하루쯤은 레피로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보는 것도 좋겠다. 도심 속 공원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지를 상상해볼 수 있다.

스페인인 대체로 투박하고 단순하다. 어딘가 어설픈기도 하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그 매력에 빠지게 하고야 만다. 스페인의 새로운 매력에 반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다. 스페인에는 따빠아르(Tapear)라는 동사가 있다. 여러 바를 옮겨다니며 따빠스를 먹는다는 뜻이다. 스페인은 한 번만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곳이다. 따빠아르하듯이 이곳저곳 여러 번 가보면 좋겠다. 어디를 어떤 코스로 가든 만족스러울 것이다. 기본 재료가 훌륭한 곳이니깐.



1. 산타 마리아 라 레알 데 라 알무데나 대성당과 왕궁
2. 안탈루시아 마을
3. 전통적으로 건조한 햄

글쓴이 에바는 좋아하는 것을 쫓아다니며 사는 사람. 스페인을 너무 좋아해서 스페인책방을 열었고, 장래희망은 스페인에 사는 사람이다.

스페인 건축의 현주소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



여행자들에게 그 도시의 첫인상으로 각인되는 건축물이 바로 공항이다.

공항 건축이 다른 어떤 랜드마크를 짓는 일보다 중요한 이유다.

가우디의 나라, 스페인 건축의 현주소는 바로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시작된다.

글. 편집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공항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중심부에서 북동쪽으로 약 13km 떨어진 바라하스(Barajas) 지역에 위치해 ‘바라하스 국제공항’으로도 불린다. 스페인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국제공항으로 유럽과 남미를 연결하는 허브공항이자, 스페인 최대 항공사인 국영 이베리아항공(Iberia Airlines)의 거점공항이기도 하다. 이베리아항공은 마드리드공항 운항 편수의 60% 이상을 맡고 있다. 이곳은 세계 최초로 시에서 운영하며 도심에서 공항까지는 약 20분이 소요된다. 터미널은 1터미널부터 4터미널까지 있는데, 1~3터미

널은 같이 있고, 4터미널은 5km 떨어진 곳에 있다. 비교적 오래된 건물인 1터미널은 항공사 수속 데스크가 과거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건축상 스텔링상 받은 4터미널

로컬 건축가 안토니오 라멜라와 영국 건축사무소 리처드 로저스가 의기투합해 설계한 4터미널은 2006년 완공되어 건축 디자인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스텔링상을 수상했다. 깊게 물결치는 천장 부분이 단연 압도적인데 길고 좁은 대나무 소재를 촘촘히 이어 붙인 형태

다.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V’자 형태의 강철 기둥들도 남다르다. 단번에 알아차리긴 어려우나 천천히 공들여 살피면 각 기둥 색깔이 조금씩 미세하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탑승구는 색깔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도착 지점, 탑승 수속, 여권 관리, 보안 심사 구역, 출발 라운지가 위치한 층은 유리와 강철로 된 다리 아래층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곳을 통해 자연광이 아래층까지 들어온다. 거대한 바코드 리더기를 닮은 재미있는 에어컨 배출구가 수하물 찾는 곳의 분위기에 명랑함을 불어넣는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방법

① 공항버스

공항버스는 연중무휴, 1년 365일 24시간 운행된다. 새벽 시간에 공항에 도착해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공항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공항버스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4터미널에서 출발해 1터미널을 거쳐 공항을 빠져나간다. 이후 고속도로를 지나 오도넬, 시벨레스 광장, 아토차까지 운행한다. 마지막 정류장인 아토차에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운행한다.

② 지하철

공항 지하철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4터미널과 1~3터미널에서 탈 수 있다. 요금은 5유로이며 순환선인 6호선까지 이동하는데 대략 12분가량 소요된다.

③ 열차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열차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4터미널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니 1~3터

미널에서 내렸다면 공항 내 터미널을 연결하는 초록색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된다.

④ 택시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가장 편안한 방법은 택시를 타는 것이다. 시내로 가는 택시는 4터미널과 2터미널, 1터미널에 있는 택시 승강장을 이용하면 된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30유로의 운임이 고정되어 있으며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이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개의 눈으로 행복을 그리는 아티스트 노보(novo)



치약, 캔디, 야구공과 글러브, 코코아 우유, 어린 시절 좋아한 스낵 등 일상 속 사물들의 모습을 순수하고 솔직한 필체로 그린 노보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우리 기억 속 어딘가에 존재하던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떠오른다.

일상을 통해 'Happiness'를 전달하는 아티스트 노보의 세계관이다.

글. 이주안 사진. 유승현 사진제공. 르레브스튜디오



1



2

1. Nike Free RN Artist Series
2. 성수동 공사 현장의 아트월
©르레브스튜디오

성수동 부지 공사 현장의 가림막을

'아트월(Art wall)'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아트월이 들어가는 성수동 부지는 어릴 적 매일 오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다. 성수동 벽화 작업에 그려진 정물들은 그 시절의 기억이 담겨 있다. 매일 친구들과 갖고 놀았던 농구공, 손목시계, 참스 캔디, 노트 등 추억이 담긴 오브제를 '아트월'에 담았다. 작업을 의뢰한 회사의 'Everything, the digital world doesn't have'라는 메시지처럼 대화와 경험들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자는 의미를 표현했다.

나이키, 아모레퍼시픽·라네즈, 삼성전자, 코카콜라 등 여러 브랜드와의 협업도 진행했다.

브랜드와의 작업 제안이 오면 나와 방향이 맞고 즐겁게 할 수 있는가 고민한다. 나이키와의 콜라보레이션은 달리기와 도시가 주제였다. 서울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즐겨하는 러닝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어서 흥미로

운 작업이라 생각했고 물론 결과물도 너무 만족스러웠다. 최근 진행 중인 라네즈와의 콜라보레이션은 처음 시도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작년부터 브랜드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제품의 효능을 의미하는 피부의 회복을 넘어 삶에서의 회복까지 고민하고, 관객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하여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앞으로 이어질 프로젝트들도 기대가 된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도 노보를 만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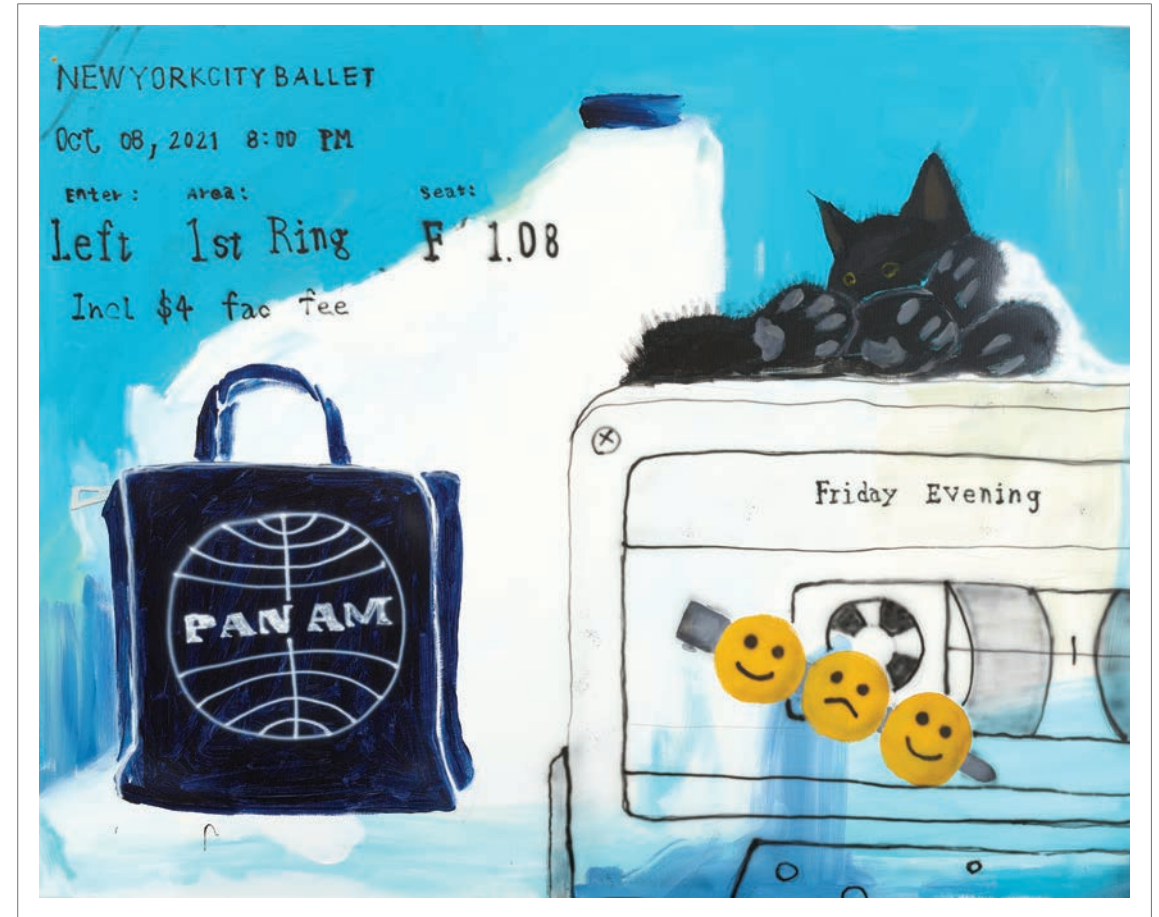
특별한 일상이 된다.

일상을 오래 관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오래 보게 되고 그것이 작업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작업에 담긴 색, 오브제 모두 그런 나의 취향을 반영한 것들이다. 내 걸모습을 보고 나를 자유분방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루틴 있는 삶을 좋아한다. 굉장히 규칙적이다. 해가 뜨면 하루를 시작하고,



라네즈 전시 대표작 ©르레브스튜디오

‘행복함, 즐거움, 갈증,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 이게 진짜 나의 것인가...’
이렇게 끊임없이 나에게 묻고 답하는 과정, 결국 내 작업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르레브스튜디오

해가 지면 하루를 마무리하며 산책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 대화도 나눈다. 그런 규칙성이 일상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더해지는 추억과 감정이 어느 날 캔버스에 그대로 투영되기도 한다. 그런 우연성이 재밌다.

결국 노보 작업의 근간에는 '자기 자신이 있다.'

‘행복함, 즐거움, 갈증,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 이게 진짜 나의 것인가...’ 이렇게 끊임없이 나에게 묻고 답하는 과정, 결국 내 작업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이제 노보와 강정은(본명)을 떨어트려 생각할 수 없는 것

처럼 내 삶 자체가 나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며 꾸준히 수집하고 관찰하다 보니 행복해졌다. 이런 감정을 고스란히 작품에 담았다.

그래서 노보의 작품을 보면 긍정적이고

따뜻하다는 평을 많이 듣는다.

최근에 그 부분을 많이 느꼈다. 모든 작업의 시작은 ‘나였지만, 내 작품을 만난 관객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를 것이다. 작품 속에서 자신과의 교집합을 찾아낸다면, 묻어둔 기억이나 희미해진 추억을 떠올릴 수도



..
 ‘타자’의 기억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그렇게 작품을 통해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는 것,
 그게 내 작업의 매력이다.
 ..

있을 것이다. 내 작품 속 사랑방 캔디를 보고 누군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다른 기억을 끄집어내기도 한다. 하나의 오브제이고 ‘나만의 추억이지만 ‘타자’의 기억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그렇게 작품을 통해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는 것, 그게 내 작업의 매력이다.

사람들의 제스처, 우연히 맺어진 대화 속에서도 영감을 받는다고 했다.

내 모든 영감의 원천은 결국 사람이다.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많은 영감을 얻는다. 나의 ‘대화’는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도 있고 SNS를 통해 나누는 대화도 있다. 또한 관객들이 내 작품을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생각하는 것도 간접적인 대화라 생각한다. 작품의 시그니처이기도 한 ‘눈세 개 스마일’은 두 개의 눈으로 봤던 세상에 하나의 눈을 더해 다양성을 갖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노보의 작품에는 유독 ‘HOPE’ 텍스트가 많다.

꽤 오랜 시간 ‘Hope’라는 단어를 작업의 주요 텍스트로 사용하였다. 일상이 작품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희망은 가까이 있는 것이라 말하고 싶었다. ‘Hope’와 함께 ‘Happiness’와 ‘Understand’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이자 작품 속에 꼭꼭 눌러 담고 싶은 의미이다.

인천국제공항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 또한 여행을 통해 영감을 많이 받는다. 어딘가로 떠난다는 것은 단조로운 일상에 환기를 가져다준다. 그 속에서 또 다른 에너지를 얻고 돌아와 다시 일상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공항을 통해 여행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도 그 과정의 즐거움을 얻기를 바란다. 😊



아티스트 노보는 회화, 설치, 퍼포먼스, 무대미술 등 여러 장르를 아우르며 일상의 단편과 행복을 이야기한다. 노블레스 컬렉션, 롯데 에비뉴엘 아트홀, 에브리데이 몬데이 등에서 개인전을 진행하였으며 나이기, 아모레퍼시픽·라네즈, 삼성전자, 골든구스 등과의 협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한 가지 스타일이나 카테고리에 안주하지 않으며 기존의 아이디어에 도전하고 작품을 마무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대화를 시도하며 발전하고 있다.



똑같은 거 말고 특별한 거! 득템력



만인이 가지고 싶어 하는 물건. 하지만 주인은 소수로 한정된다.
현시대는 그것의 획득 여부에 따라 권력을 부여하기도 한다.
새로운 트렌드 용어로 대두되고 있는 득템력에 대해 알아보자.

글. 이수진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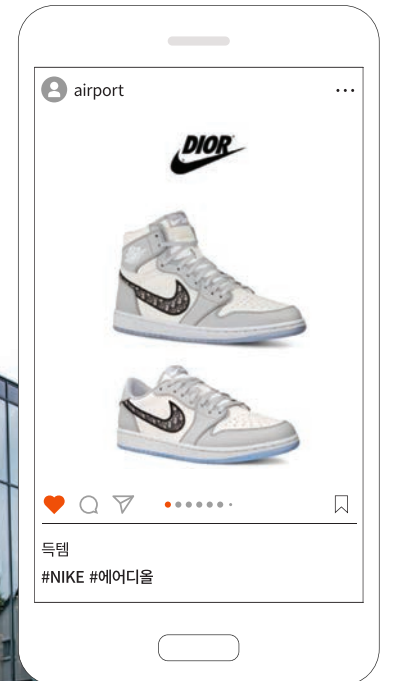
값비싼 브랜드가 아니라, 갖기 어려운 아이템을 누가 얻어가 과시와 차별화의 요소가 되고 있다. 경제적 지불 능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희소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능력을 '득템력'이라 한다. '득템'은 원래 게임 문화에서 만들어진 단어다. 원하는 게임 아이템을 얻었을 때, '얻을 득'자와 아이템item의 '템'자를 합쳐 득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쇼핑 문화에서 감지되고 있다. 가격에 더해 소비자들의 노력과 간절함을 저울질하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득템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소비자 행동에 변화가 일고 있다. 재력만으로는 타인과의 구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시대에는 돈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아이템을 향유하는 것이 더욱 희소한 경험이 되었다. 알아볼 수 있는 이해력을 가진 사람끼리만 공유되는 능력이 요구된다. 돈이 있어도 살 수 없고, 득템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일종의 '구별짓기' 전략인 셈이다.

득템력을 높이기 위한 3가지 방법

득템력을 발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줄 서고 기다리는 것이다. 매장 오픈 전부터 밤샘 줄서기에 텐트가 동원되기도 한다. '오픈런'을 하는 소비자들의 이야기다. 소비자들은 서로 오픈런 노하우나 정보를 공유한다. 줄서기 대행 아르바이트는 3~4시간에 5만 원 정도로 최저시급을 훌쩍 넘는 금액이며, 중고마켓에는 줄서기 자리를 거래하는 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운'으로 쟁취하는 전략이다. 수량이 한정된 제품에 대해 구매 자격을 추첨으로 선정하는 '래플(Raffle)'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명품 브랜드 디올과 신발 브랜드 나이키가 컬래버레이션해 만든 스니커즈 '에어디올'을 정가 300만 원에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8000족을 판매했는데, 응모자가 500만 명이었다고 한다. 이 같은 전략이 꼭 명품에만 해당 되는 건 아니다. 화제성을 불러일으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구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과시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
‘사치의 대중화’로 높은 가격보다 구하기 어려운 아이템이 차별화의 기호가 되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득템의 과정 자체가 하나의 여가이자 놀이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기성세대의 경우 맛집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노동일뿐이지만, 득템을 즐기는 소비자에게는 그 과정도 즐겁다.
 ..

마지막으로 득템하고 싶은 간절함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브랜드에서 원하는 구매금액을 채우고, 혹은 요청하는 드레스 코드도 맞춰서 구매를 하러 가야 한다. 또 매장 직원을 내편으로 만들어 기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시계 브랜드의 경우 자신의 구매 이력을 에세이로 제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경우, 한 맛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GPS로 그 맛집 근처에 있음을 인증해야 한다. 이런 마케팅 전략을 헝거 마케팅(Hunger Marketing)이라고 하며, 의도적으로 리미티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득템력이 중요해진 이유

‘사치의 대중화’로 높은 가격보다 구하기 어려운 아이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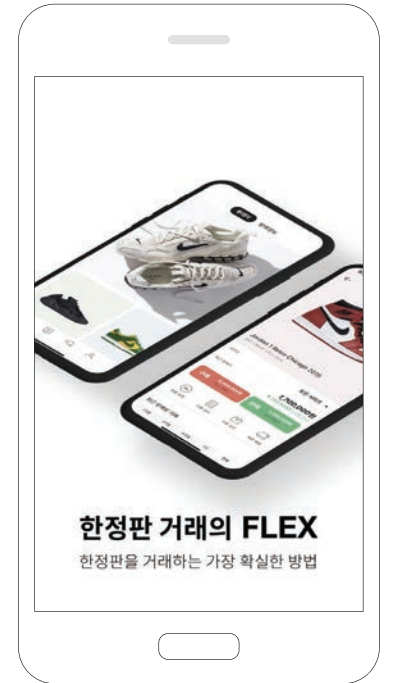
차별화의 기호가 되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득템의 과정 자체가 하나의 여가이자 놀이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기성세대의 경우 맛집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노동일뿐이지만, 득템을 즐기는 소비자에게는 그 과정도 즐겁다. SNS에 그 과정을 올리거나, 유튜브 영상으로 콘텐츠를 만들기도 한다. ‘빵지순례’, ‘디저트 뿌시기’ 등 인증샷 문화가 더욱 커지는 것도 배경이 된다.

또 한정된 아이템이 투자의 일환이 된다는 점도 득템력 트렌드 확산의 이유로 꼽힌다. 중고마켓 플랫폼이 발달함에 따라 리셀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이 용이해졌다. 중고마켓에서 특히 한정판의 가치는 그 어떤 상품들보다 막강하기 때문에 더욱 효과를 발휘한다. 이에 중고마켓 시장은 매년 성장 중이다. 국내 스니커즈 리셀 1위 플랫폼인 크림은 시장에서 잠재력을 인정받아 2021년 10월에 1,000억 원 규모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크림은 출범 2년 만에 회원 160만 명을 모았고 누적거래액도 2022년 1조 원을 앞둔 만큼 성장 속도가 빠르다.

득템력의 등장이 시사하는 의미

소비자의 즐거움이 된 득템력은 종종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되팔렘’ 같은 중고가격 왜곡은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되팔렘이란 물건을 사들여 비싼 값에 되파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다. 2012년 블리자드에서 컴퓨터 게임 ‘디아블로3’ 한정판을 내놓았을 때 이를 사재기해 되파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되파는 행위와 게임 캐릭터 ‘네팔렘’을 합성해 등장한 용어다. 사려는 사람이 많은데 물량이 충분하지 못한 제품들이 주 타겟이 된다. 예를 들어, 한정 생산으로 유명한 에르메스 명품 가방의 경우 매장 정가가 1400만 원인데, 중고가는 3000만 원선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득템력 트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막강한 마케팅 수단으



로 활용된다. 적절한 기획력으로 소비자들의 갈급함을 자극하여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득템력은 과소비와 상대적 박탈감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득템력 트렌드의 부상에 힘입어 소비자 복지를 위한 시장의 자생적 노력과 제도적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함께 발전시켜야 비로소 건강한 시장으로 완결될 것이다. 상품 과잉의 시대, 돈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현대판 구별짓기 경쟁은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다. ☹️

글쓴이 이수진은 서울대학교 소비자학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에서 소비문화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트렌드코리아』, 『더현대서울 인사이트(집필 중)』가 있다.

신세대의 원조 X세대 부활! 엑스틴(X-teen)이즈 백



‘오렌지족’, ‘야타족’ 등으로 불리던 X세대가 돌아왔다.
10대 청춘의 환상을 가슴에 담고, 10대 자녀의 욕망을 마음에 품은 채 말이다.
현 사회는 이들을 ‘엑스틴(X-teen)’이라 명명한다.

글. 이수진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X-teen

왜 지금 엑스틴에 주목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이 세대가 40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큰 소비력을 갖춘 집단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7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 통계’에 따르면, 4050은 32.5%로, 2030세대(26.2%)나 6070세대(20.7%) 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은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이기도 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수 연령별 월평균 소비지출은 39세 이하 가구가 237만 6,000원, 40~49세 가구 309만원, 50~59세 가구 278만 3,000원, 60세 이상 가구 169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소비에 있어서도 엑스틴의 영향력은 크다.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앞서서 받아들이는 것은 MZ세대지만, 시장에 정착하게 하는 것은 X세대이다. X세대는 온·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트렌드에 관심이 높으며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태도가 열려 있기 때문이다.

is back

X세대

1980년대 후반 혹은 19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거나 졸업한 사람들로 1960~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한다. 워크맨과 삐삐가 유행했던 X세대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개인주의를 탄생시키고, 남들과 차별화되길 원하는 ‘개성’으로 푹푹 뭉친 신세대였다.





..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앞서서 받아들이는 것은 MZ세대지만, 시장에 정착하게 하는 것은 X세대이다. X세대는 온-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트렌드에 관심이 높으며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태도가 열려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X세대가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Z세대의 부모이기 때문이다. 자녀의 소비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부모의 소비 성향이다. 따라서 세대의 특성을 파악할 때 그 부모 세대와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X세대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개성을 존중한다.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세대로 평가받는 X세대는 그들의 특성을 자녀에게 고스란히 이식했다. Z세대가 추구하는 다양성과 공정성, 결과론 출신에 대한 유연한 사고, 인류와 환경을 고려하는 성향 등은 부모 세대가 꿈꾸던 자유롭고 진보적인 가치관과 닮았다. X세대는 자녀와 함께 놀고 자녀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숏폼 플랫폼인 '틱톡'에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해시태그 중 하나는 #가족틱톡 혹은 #가족틱톡영상이다. 대부분 부모님과 함께 춤을 추는 영상을 올리거나 특정 챌린지를 함께 한다. 또 자녀와 함께 게임을 즐긴다. '2021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57.5%가 자녀와 함께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Z세대의 인싸력을 몸소 체득하고 있는 것이다.

엑스틴이 주도하는 새로운 소비시장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의 한심한 작태' 1990년대, X세대의 패션을 스케치한 기사 속 한 문장이 다. 통굽 신발에 배꼽티를 입은 짧은 머리의 여자, 긴치마



.. 기성세대와 MZ세대 사이에 끼어 친구 세대갈등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깁세대'다. 후배들로부터는 끈대소리를 듣지만, 막상 과거 선배들이 누렸던 대접은 온데간데없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서점가 자기계발 부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키워드는 '팀장'이다.

를 입고 귀걸이를 한 남자들을 걱정하는 '끈대'들을 향해 이들은 당당히 응수했다.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조크든요(좋거든요)"라는 말을 하였듯 이들은 탈권위와 탈관념을 외친 세대답게 과거의 40대라면 상상하기 어려웠던, 고정관념을 깨는 소비에 도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미니MINI는 깜찍한 외관 덕분에 2030 여성들이 주로 구입하는 차로 인식됐다. 그러나 2020년 5월부터 1년간 미니 구매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050 세대의 구매 비중이 확연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30대가 41%, 40대가 31.3%를 차지하고 있었다. 1990년대의 물질적 풍요 속에서 자랐지만 이들의 삶이 마냥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엑스틴은 기성세대의 관행을 충실히 이행하며 중간관리자로 성장했지만, 기성세대와 MZ세대 사이에 끼어 친구 세대갈등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깁세대'다. 후배들로부터는 끈대소리를 듣지만, 막상 과거 선배들이 누렸던 대접은 온데간데없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서점가 자기계발 부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키워드는 '팀장'이다. 『팀장 리더십 수업』, 『팀장혁명』, 『팀장은 처음이라』 등 제목에 팀장을 내세운 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끈대'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성찰하려는 이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엑스틴의 의미

엑스틴은 우리 사회의 허리다. 선수로 뛰면서 동시에 코치 역할도 하는 조직의 중추이며, 시장을 소비력으로 이끄는 주도세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장의 타깃 선정에 있어 엑스틴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특히 엑스틴은 디지털에 익숙하지만 아날로그를 체험한 세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유통업계에서도 엑스틴을 지류광고가 통하는 마지막 활자 세대로 보고 있다. 특히 각자도생의 시대, 조직에서 엑스틴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조직 관리의 초점이 MZ세대에 쏠리면서 엑스틴은 당면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사실 엑스틴은 지금껏 생존을 위해 조직에 적응하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던 세대다. 위 세대와 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기대하기 전에 이들이 겪은 세대 갈등과 리더십 고민을 적극적으로 들어줘야 한다. 궁극적으로 조직을 넘어 사회를 연결해 주는 '타인에 대한 공감'을 빠르게 적용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중년 소비자로서 앞으로 이들이 만들어 갈 한국 사회의 전례 없는 새로운 변화가 다시 한번 기대된다. ☺

한국인이 사랑하는 화가 <에바 알머슨 특별전 : 에바 알머슨, Andando>



편안하게 감은 눈과 살짝 미소 지은 입, 둥그스름한 얼굴, 풍성한 파마머리에 따스하면서도 다채로운 색감.

누구나 한 번쯤 마주했을 이 그림들은 '에바 알머슨'의 작품이다.

'사랑전도사', '행복을 그리는 화가'로 알려진 에바 알머슨이 한국을 찾는다.

지난해 'Vida(삶)'에 이어 'Andando(어서 와)'를 주제로 한 세 번째 전시회, 행복을 부르는 이번 전시를 주목하자.

글. 이주안 자료제공. 디커뮤니케이션

둥글둥글한 그녀, 사랑스럽지 아니한가

온통 꽃투성이다. 머리에, 귀에도, 그림 배경에도 보이는 건 꽃뿐이다. 화면 속 빨강과 노랑과 하얀 꽃잎이 환하게 미소 짓는 여성의 얼굴 주변을 휘감았다. 꽃잎에 뒤덮인 게 나쁘지 않은 듯 입가가 위로 올라간 여성, 스페인 작가 에바 알머슨의 작품 'Future'이다.

스페인의 사라고사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화가 에바 알머슨은 따스하게 번지듯 표현된 색과 기분 좋은 미소,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행복을 그리는 화가'로 알려져 있다. 그림 속 인물들은 작가 자신, 남편, 동생 등 주변 사람들로 표현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에바 알머슨의 모습으로 작가는 자화상을 통해 직접 관객을 만났던 셈이다. 풍성하게 만개한 꽃 역시 작가의 대표적

소재 중 하나다. 이 꽃의 화려함은 인생의 절정을 뜻하며 삶의 단단한 생명력을 표현하기도 한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화가'라는 수식어처럼 그녀의 작품은 따뜻하고 평화로워 마치 동화 속 장면을 연상시킨다. 에바 알머슨은 솔직하고 천진난만한 시선으로 평범한 일상을 유쾌하고 사랑스럽게 표현하며 둥글둥글한 얼굴에 미소 짓는 그림 속 인물을 통해 관객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한다.

2022년 신작 최초 공개, 역대 최대 규모 특별전

미국과 아시아 등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에바 알머슨은 특유의 회화 기법으로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는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전시회를 진



Future, Oil on canvas, 116 x 89 cm
©2021, Eva Armisen, All rights reserved



The verbena, Oil on canvas, 130 x 195 cm
©2022, Eva Armisen, All rights reserved



Choosing the dress, Oil on canvas, 195 x 130 cm
©2021, Eva Armisen, All rights reserved



Separate the grain, Oil on canvas, 116 x 89 cm
©2022, Eva Armisen, All rights reserved



에바 알머슨이라는 이름 앞에 이제는 타이틀로 자리 잡은 '행복을 그리는 화가'. 그녀는 작품을 통해 작은 일상을 특별한 순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솔직하고 천진난만한 시선,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화풍으로 일상을 그려내며 관객에게 감동과 치유를 선사한다.

행했으며 2018년 선보인 전시에서는 40만 관객의 극찬을 받았다.

이번 전시는 에바 알머슨의 역대 최대 규모 전시로 대표 원화 작품부터 대형 조형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한국에서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녀는 한국인의 사랑에 답하고자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인 작품을 갖고 국내를 찾는다. 올해 전시회에서는 한국 관객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2022년 신작이 최초 공개된다.

에바 알머슨은 한국과 인연이 깊다. 2016년 제주 우도를 방문한 알머슨은 해녀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등 제주

해녀가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데 기여한 화가로 알려져 있다. 해녀 그림은 2016년 제주 해녀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물숨>에서 소개되었으며, 2017년 『엄마는 해녀입니다』 책 삽화로도 출간됐다.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행복을 전하는 '에바 알머슨'. 모든 작품에서는 밝고 환한 에너지가 느껴지며, 그녀가 그리는 보통의 날들은 어떤 순간보다 아름답다. 에바 알머슨이 그린 일상과 주변 인물들은 그녀의 삶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림처럼 따뜻한 순간을 찾아보게 한다. 심표와 행복이 필요한 지금 우리에게 그녀가 건네는 무한한 위로와 희망이다. ☺



기간: 2022.5.13.(금) ~ 2022.12.4.(일)
전시장: 용산 전쟁기념관 특별전시실
관람시간: 화~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5시 입장 마감)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 매주 월요일 휴관(월요일 포함 된 연휴 때는 연휴 다음날 휴관)

자동차 복합문화공간 BMW 드라이빙 센터



평소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면 인천 영종도에 있는 BMW 드라이빙 센터에 주목하자.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BMW 차량을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트랙에서 직접 운전도 해 볼 수 있어 최고의 자동차 놀이터라 할 만하다.

글. 이정인 사진. 유승현



공항을 찾은 이들에게 열린 공간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거나 여유 있게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BMW 드라이빙 센터가 제격이다. 인천공항에서 10분 거리에 근접해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들도 꼭 둘러 보는 장소로 명성이 자자하다. 'BMW 차주가 아닌데도 이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소용이 없다. BMW 드라이빙 센터는 입장료가 무료다. 당연히 주차료도 없다. 꼭 BMW '드라이빙'을 위해 찾지 않아도 된다. 센터를 찾으면 1층에 전시된 BMW 차량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특히 2층에 마련된 카페에서는 드라이빙 센터의 서킷을 도는 차를 보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친구나 연인들도 드라이빙 센터를 데이트 코스로 활용하기도 한다.



전 세계 유일의 자동차 복합문화공간

2014년 문을 연 BMW 드라이빙 센터는 BMW 그룹 내에서 트랙과 고객 체험 시설이 한 곳에 자리 잡은 전 세계 유일의 자동차 복합문화공간이다. 또 그룹 내에서 아시아 지역으로는 최초이자 독일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건립되었다. BMW 드라이빙 센터는 29만 1,802m² 면적 안에 2.6km 길이의 드라이빙 트랙과 오프로드 코스를 비롯한 시승 체험 시설, BMW와 MINI, BMW 모터라드, 롤스로이스 등 BMW 그룹 내 모든 브랜드의 모델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 공간, 특별한 출고 경험을 제공하는 ‘딜리버리 존’, 8~13세 어린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주니어 캠퍼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BMW 고객을 위해 왕복 셔틀 서비스, 차량 보관 서비스, 자동 세차 서비스 등 에어포트 서비스를 제공하며 평일

에는 300여 명, 주말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찾아오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색다른 운전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BMW 드라이빙 센터는 전문적인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크게 체험 목적의 ‘Experience Program’과 트레이닝 목적의 ‘Training Program’으로 구성된다. ‘Experience Program’은 트랙 위 드라이빙을 처음 경험하는 고객이라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주행 체험 프로그램으로 BMW, MINI 전 모델 중 원하는 차량으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Test Drive’와 오프로드 환경에서 BMW의 성능을 경험할 수 있는 ‘Off-Road’ 프로그램이 있다. ‘Training Program’은 기본 교육을 이수한 고객을 위한 체계적인 심화 트레이닝 프로그



램으로 다양한 상황의 집중 교육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드라이빙 스킬을 배울 수 있다. 직접 드라이빙을 원하지 않는 고객을 위해 드라이빙 전문가와 함께 동승해 즐기는 ‘Taxi Program’도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 BMW와 MINI 모델 중 원하는 모델을 직접 선택해 일반 도로를 주행해 볼 수 있는 ‘Scenic Drive’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니 영종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다이내믹한 주행을 느껴보길 바란다. ☺

BMW 드라이빙 센터

인천 중구 공항동로 136
 매일 09:00~18:00(월요일, 설, 추석 연휴 휴무)
 080-269-3300 / www.bmw-driving-center.co.kr

무해한 하루를 보내는 일상 속 '제로 웨이스트'



'환경 문제'라고 하면 멀게만 느껴졌던 옛날과는 달리
요즘은 친환경을 넘어, 환경을 위한 행동이 필수인 '필환경 시대'이다.
아직도 환경보호가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생활 속 작은 변화만으로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해 보자.

글. 이주안



zero Waste

제로 웨이스트 5R 실천법

- ① 필요하지 않은 물건 거절하기(Refuse)
- ② 쓰는 양 줄이기(Reduce)
- ③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품 사용하기(Reuse)
- ④ 재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재활용하기(Recycle)
- ⑤ 썩는 제품은 매립하기(Rot)

#1



장바구니, 텀블러 사용하기

장을 보러 간다면 비닐봉지, 플라스틱 용품 대신 식재료를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사이즈의 리유즈백을 챙기자. 흠이 묻으면 툭툭 털고 오염될 시 세탁을 하면 끝. 생선을 제외한 야채와 과일 등의 식재료를 담을 수 있다. 커피나 배달 음식을 포장할 때는 텀블러를 비롯해 일회용 포장 대신 다회용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2



대나무 칫솔 사용하기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40억 개, 9만 톤의 플라스틱 칫솔이 버려진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제품이 바로 대나무 칫솔이다. 플라스틱 칫솔은 분해되는 데 500여 년이 걸리지만, 생분해되어 자연으로 순환되는 대나무 칫솔의 경우엔 3~6개월이 소요된다.

#3



전단지, 영수증, 빨대 거절하기

불필요하게 종이를 많이 사용하며 길거리 쓰레기의 주범이 되는 전단지도 거절하자. 요즘은 카드 결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영수증을 받아도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면, 영수증을 받지 말고 거절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음료를 자주 마신다면, 빨대 이용도 줄이자.

#4



중고 거래하기

새로운 제품을 사면 언젠가는 중고가 되고, 중고는 쓰레기가 된다. 내게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요즘 핫한 중고 거래로 구해보는 건 어떨까? 반대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버리지 말고 중고 마켓에 올려보자.

#5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 안 먹기

고기를 안 먹는 것과 제로 웨이스트가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고기 사육으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를 줄일 수 있다. 일주일에 하루, 일 년에 52일을 채식한다면 15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

잘 맞아서 소름 돋는 색깔 심리테스트



색이란 참 신기하게 같은 색상이라도 살아온 환경이나
경험과 성향 그리고 취향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느낀다고 한다.
은근히 잘 맞아 신기한 색채 심리테스트 시작해 보자.

정리, 편집실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4가지색 선택하기

ex) 1.빨강 2.노랑 3.파랑 4.주황



첫 번째로 선택한 색 <나의 본질적인 성격>

나조차 모르고 있던 내 잠재적인 성격

빨강: 활력이 넘치고 독창성이 뛰어난 사람

주황: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노력형

노랑: 소극적이지만 정신력이 강하고
실행력이 있는 사람

파랑: 차가워 보이지만 실은 따뜻하고
다정한 스타일

흰색: 예민하며 감성적인 몽상가 스타일

보라: 개성적인 매력의 소유자
다소 변덕스러운 경향이 있음

초록: 리더십이 강한 사람

두 번째로 선택한 색 <나의 과거>

이제까지 장애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기

빨강: 현실주의적인 성격이 재능과
매력을 가로막았음

주황: 상대방의 반응에 신경 쓰다가
실패하는 유형

노랑: 사소한 문제에도 심각하게 고민해
시간 낭비하는 유형

파랑: 지나치게 남의 일에 앞장서는 타입

흰색: 어리광 때문에 주위에 민폐 끼치는 타입

보라: 정신과 육체의 불균형이 장애 요인

초록: 지나친 나태함이 성장의 방해 요소

세 번째로 선택한 색 <나의 현재 모습>

현재 나의 모습, 감정 상태 알아보기

빨강: 매사에 의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

주황: 합리적인 사고로 매사를 원활하게 처리

노랑: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시기

파랑: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
무기력한 상태

흰색: 과거의 실패가 콤플렉스로 작용

보라: 예민하고 걱정이 많은 시기

초록: 무슨 일이든 적당히 하려는
경향이 강한 시기

네 번째로 선택한 색 <나의 미래>

앞으로의 미래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팁

빨강: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

주황: 감정조절에 힘쓰고 좋고 싫음을
확실히 할 것

노랑: 트러블 회피와 적응 능력이 상승됨

파랑: 직업을 바꾸거나 새 취미가
생길 수 있음

흰색: 좋은 파트너를 만나 행운이 상승됨

보라: 상상력과 독창성이 향상됨

초록: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음

공항 속

작은
공원



“잠시 쉬어 가세요.”

오랜 여정을 시작하기 전
긴장과 흥분으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자연에서 쉬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싱그러운 꽃과 나무가 가득한 공항 속 작은 식물원.
숨 쉬는 공항, 쉬 있는 공항, 자연이 있는 공항에서
숲속의 맑은 공기와 편안한 휴식을 느껴보세요.





자연은 가장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숲과 나무 계절이 내는 빛같은
그 어떤 채색보다 매혹적입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안식과 위로를 받습니다.
자연의 주는 설렘, 공항이 선사합니다.
녹음의 싱그러움과 풍요로움을 만끽하세요.
당신을 위해 마련한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낮선 삶의 틈에서 나를 찾아가는 여정



오늘도 트렁크 가득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나를 위한 것도 있고 다른 누군가를 위한 물건도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우리의 여행을 돌봐줄 마음을 눌러 담았습니다.
무심하게 담은 물건도, 마음도 우리의 여행을 가득 채워주겠지요.
그렇게 나를 찾아 낯선 여정을 시작한 이들의 시간에 함께합니다.

글. 이정인 사진. 유승현



정현영+김승우

“저희는 자동차 디자인을 하는 ‘클리오디자인’ 회사 직원들로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에서 열리는 자동차 디자인 전시회에 참여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떠나요. 이번 전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좋겠어요. 개막식 참석 후에는 베를린과 영국에 들러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오려고요.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공항을 찾았는데 서류 준비가 많아 쉽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떠나는 만큼 많이 설렘어요. 좋은 기억 많이 담아 올게요.”



박성훈

“작년 겨울에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대학교 입학 준비를 위해 다시 일본 이가타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지금 일본에서 수구를 배우고 있거든요. 수구는 물속에서 하는 유일한 구기 운동인 만큼 힘들기도 하지만 매력이 많아요. 7월에 대회가 있는데 그동안 기량을 갈고닦아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목표예요. 무엇보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가족과 친구들도 자유롭게 일본에 왔다 갔다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Sovann+Alice

“저와 제 딸은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최종 목적지인 캘리포니아에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 잠시 머물고 있는데 인천공항은 환승 공항으로 최고예요. 장시간 여행이 피곤했는데 공항에 휴식 공간도 많고, 편의시설도 많아 대기하는 동안 딸과 함께 편안히 있었어요. 특히 한국 전통 공연을 너무 인상 깊게 봤어요. 무엇보다 공항이 너무 아름다워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가족에게 얘기해 주려고요. 다음에는 여행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요.”



기술혁신이 바꿀 공항과 항공산업의 가치혁신

이제 COVID-19로 인한 항공 수요의 위축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세계 항공시장이 코로나 이전의 수요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이 어떻게 기술혁신과 디지털 변환을 통해
세계 1등 공항의 위치를 강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글. 이철웅 고려대학교 교수

COVID-19로 오랫동안 발이 묶였던 많은 사람이 가까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항공 여객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wide-body 장거리 대형 여객기 운항의 증가로 항공 물류에 대한 공급 부족 사태 역시 급격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필자는 2023년~2024년경 세계 항공시장이 2019년 코로나 이전의 수요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보다도 훨씬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포스트 팬데믹의 여행이 그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서 같을 것인가? 필자는 몇 가지 측면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첫째 COVID-19를 이겨내려는 산업계와

개인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재택근무와 같은 여러 가지 합리성과 편리함을 경험하였으며, 포스트 팬데믹에서도 이러한 비대면 시스템은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COVID-19는 우리 스스로 안전과 위생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었다. 안전과 위생이 우리의 소비와 활동을 계획하는데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수요와 추세변화를 가정하고 미래 항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해 나가는데 인천공항은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형을 적극적으로 접목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몇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Digital Transformation Metaverse

첫 번째는 기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을 하려는 여객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밀집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식음을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COVID-19를 통해 체득하였다. 포스트 팬데믹 여행에 있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와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백신접종증명과 배달 음식 주문 등으로 스마트 기기는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다가왔다. 공항 이용과 항공여행에 있어서도 스마트 기기는 많은 변화와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Virtual Queueing(가상 대기줄) 기술은 이미 보편화되었

으며, 미국의 시애틀/LA 공항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이용객은 대기 시간 동안 상업시설 이용 등을 통해 편의성과 생산성을 추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기 중 밀접접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백신접종증명과 같은 디지털 신분증이 항공여행에서 보편화 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통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디지털 신분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면세점과 항공보안 등 공항 내 시설 이용에 있어서 여객가치 혁신뿐 아니라 추후 여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업시설 경쟁력 제고와 적정 임대료 산출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Virtual Hub

..
미래 공항 운영에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은 다른 어느 요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공항의 물리적 허브로부터 가상의 허브로의 전환은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공항혁신의 메가트렌드가 될 것이다.
 ..

두 번째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한 효율적이고 친환 경적인 공항 운영이다.

IoT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시스템 효율성과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이미 수하물관리시스템에서 도입되고 있다. 아울러 발달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여객과 수하물의 항공보안 검색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것도 중요하며 인천공항에서 선제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공항에 대한 통합운영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트윈으로 공항 전체를 모형화해야 한다. 에너지, 보안, 여객흐름, 수하물, 지상교통서비스 등의 통합 관리를 최적화 기술을 통해 실시간 기반으로 실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여객 가치는 혁신될 것이며 에너지 효율은 극대화되고 안전하고 활기찬 공항이 구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와 플랫폼을 활용한 고객 경험의 혁신이 공항의 지평을 넓혀놓을 것이다.

메타버스 및 플랫폼 기술의 활용은 공항을 여행의 시작과 종료점이 아닌 중심점이 되도록 변화시킬 것이며, 혼

련, 정비 등 항공산업의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공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토론토 피어슨 공항 등에서 모색되고 있는 것처럼 전자상거래의 중심으로 공항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고, 미래 공항 운영에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은 다른 어느 요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공항의 물리적 허브로부터 가상의 허브로의 전환은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공항혁신의 메가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선도해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서 위치를 확보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글쓴이 이철웅 교수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방문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한산업공학회 등 다수의 학회 회장/부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제조/물류'를 주제로 한국전력, 한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내기관에 대한 자문 및 연구활동과 싱가포르국립대/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국제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다시 날다 공항 운영 정상화를 위한 힘찬 날갯짓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인천국제공항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가 시행된 4월 1일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수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고,
중·장거리 항공노선과 공항버스 운행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정리. 편집실



방역조치 완화로 활기를 찾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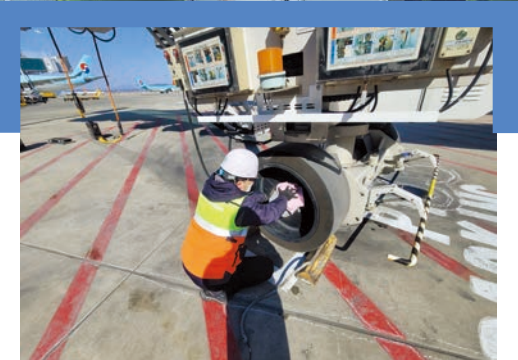
1. 입국장 방역시설(4월 1일 이전)
2. 입국장 방역시설 철거(4월 1일 이후)

①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면제

예방접종을 완료한 모든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가 4월 1일부터 면제되면서 인천공항의 일 이용객 수가 2만 명대로 회복하였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입국안내소 20곳과 대기장소 13곳, 택시탑승장 2곳을 철수했다. 또한 버스 승차권 무인발권기 68대는 운영을 재개했으며, 매표소와 버스 탑승장 각각 2곳도 운영이 정상화됐다. 앞서 해외입국자의 경우 전용 입국동선을 따라 지정된 대기장소와 매표소 및 버스·택시·승용차 승차장만을 이용해야 했지만, 해외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전국을 연결하는 공항 리무진 버스 81편도 운행이 재개·증편됐다. 한편 인천공항은 향후 코로나19 감염세 추이에 따라, 이용객 수 회복 정도를 모니터링한 후 노선버스와 택시, 콜밴 등 교통편 운영을 단계별로 늘려갈 계획이다.

② 25개월 만에 하와이 운항 재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조치 이후 중·장거리 노선으로는 처음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천-하와이 노선의 운항이 재개되었다. 이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비운항 조치 이후 25개월 만이다. 지난 3일 첫 운항편인 아시아나항공 OZ232편은 탑승률 80%를 달성했다. 특히 탑승객 중 대다수가 미루어 왔던 해외 신혼여행을 가는 부부와 가족 단위 여행객이었다. 인천~하와이 노선은 4월 1일부터 시행된 국내외 백신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해제 조치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 재개에 나선 첫 노선이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해외여행이 가능한 곳이다. 인천공항은 이번 중·장거리 노선 운항 재개가 본격적인 해외여행 활성화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③ 공항시설 전반 대대적인 환경점검

인천공항은 지난 2월 21일부터 약 2개월간 코로나19 이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여객수요 회복에 대비하여 공항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대청소를 진행했다. 이번 환경정비는 제1·2여객터미널, 탑승동, 교통센터 등 여객용 시설뿐만 아니라 활주로, 각종 기반 시설 및 플랜트·수하물시설까지 포함하여 공항 내·외부 시설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만큼, 일평균 800여 명의 인력과 200여 대에 이르는 장비가 동원되어 약 2개월간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 운영되지 않았던 체크인 카운터 등 여객 동선상 주요한 시설물들에 대한 스팀 및 소독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입출국장의 전 지역에 대한 살균 소독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여객들에게 보다 안전한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방역소독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 재포장, 수하물 컨베이어벨트 하부 정비, 항공등화시설 정비 및 레이더 장비 노후점검 등 수요회복에 따른 항공기 운항 안전 및 공항 운영 정상화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

친환경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인천공항에너지(주)

인천공항에너지(주)는 국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에 적극 기여하는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인천국제공항 상업운전('01. 3월) 이후 약 21년 동안
인천국제공항과 주변 지역 약 16,778가구에 24시간 365일 무중단·무사고로
안정적인 열·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글. 이정인 사진. 유승현

무중단 지역 냉·난방 공급

인천공항에너지(주)는 인천공항이 세계 초일류 공항으로서 세계로 통하는 모든 국가의 주요 관문인 만큼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여행객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24시간 365일 무중단 지역 냉·난방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여름에는 시원한 냉방을, 겨울이면 따뜻한 난방 및 온수를 제공하고 있는 인천공항에너지(주).

무엇보다 인천공항에너지(주)는 2010년 인천국제공항공사로의 지분 인수 후 사업구조를 열판매 위주의 집단에너지사업으로 전환하며 청정연료인 LNG를 단일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 화력발전소는 투입에너지의 약 30~55%만 전력으로 생산되고 나머지 열에너지는 대기나 바다로 버려지지만, 이에 반해 열병

합발전소는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여 열은 지역난방 공급용으로 활용하게 되므로 에너지 이용 효율이 약 75% 수준으로 매우 높다. 또한 청정연료인 LNG는 일반 화력발전 대비 각종 오염물질(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배출이 월등히 낮아 인천공항에너지(주)는 영종도 지역에 친환경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Net-Zero) 정책에 따라 분산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인천공항에너지(주)는 지난 21년 동안 무중단·무사고로 연

간 약 40만Gcal의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는 인천지역 약 62천가구(APT)에 공급 가능한 양이며, 또한 인천지역 전체 지역난방 열공급량의 15%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인천지역의 친환경 에너지 공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RE100 달성에 앞장

최근 인천공항은 아시아 공항 최초 'RE100'에 가입하며 "2040년까지 공항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성장하는 자회사

인천국제공항은 현재 4단계 건설사업을 진행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항공 운항 60만회, 여객수 1억 6백만명, 화물 630만톤 등을 처리 가능한 초대형 글로벌 공항으로 거듭난다. 또한 복합리조트 등 지속적으로 주변 지역 개발이 확대될 예정이며, 영종도의 생활권 인구 역시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에는 약 30만명의 계획도시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너지(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긴밀한 협력하에 에너지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너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너지(주)는 공사-자회사 간 '인천공항 RE100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탄소중립(Net-Zero) 정책 및 RE100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탄소중립 및 RE100 달성을 위한 ESG경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분과별(E: 환경분과 / S: 사회분과 / G: 지배구조분과)로 추진과제를 발굴, 실행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RE100 달성을 위한 인천공항과의 협업 이외에도 인천공항에너지(주)는 공기업 자회사로서 영종도 지역주민을 위한 취약계층 열요금 감면 및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ESG경영의 일환으로 회사 주변 우수지, 인천공항 방조제 등의 환경정화 활동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공급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과 '생명나눔·사랑의 헌혈 약정식'을 맺어 연간 2회 주기적으로 헌혈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청소년 교육 봉사활동(재능기부),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소외계층 코로나 방역물품 및 후유증 지원, 지역사회 경로당 청소 및 방역 등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COVID-19 Free Airport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인천국제공항은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며 공항 이용을 통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현재 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 수요 회복에 따른 검사센터 이용객 증가 및 이용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을 위하여
1곳을 추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정리, 편집실 사진, 유승현



인천공항 코로19 검사센터 이용 안내

- 출·입국 여객 대상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확인서 발급 서비스 제공
- 제1여객터미널 2개소(동편, 서편), 제2여객터미널 1개소(서편) 운영 중

	출국검사	입국검사
검사방법	RT-PCR검사 항원·항체검사	RT-PCR 검사
운영시간	07~18시 *T1/T2 점심시간(12~13시) 제외	07~21시 *T2 저녁시간(17:30~18시) 제외
참고사항	해외 국가 입국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국가 확인	질병관리청 '국내 자가격리 면제 절차' 확인
공통사항	코로나19 검사시 여권을 반드시 지참	

* 검사비용, 검사시간 및 결과 확인 가능시간 등 세부사항은 인천공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확인하세요.
문의: 인천국제공항 고객센터 1577-2600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인천공항 T1 코로나19 검사센터(동)

위치: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지상 1층 외부 동편(다락휴 호텔 앞 외부 출입구 인근)
연락처: 1600-5110



인천공항 T1 코로나19 검사센터(서)

위치: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지상 1층 외부 서편(다락휴 호텔 앞 외부 출입구 인근)
연락처: 1533-2030



인천공항 T2 코로나19 검사센터

위치: 제2여객터미널 지하 1층 서편 주차장(출입증발급소 앞)
연락처: 032-741-9000/032-743-7080



팀: 크레스코X강승훈(바이올린 왕한나, 비올라 고희경, 첼로 신원아, 피아노 강승훈)



팀: 숨은하루(건반 이석원, 리코더 남형주, 바이올린 이효)

문화와 하늘을 잇다 찾아가는 공연

극장이나 아트홀 외에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누구나 365일 다양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인천국제공항의 '찾아가는 공연'을 눈여겨보자.

정리. 편집실 사진. 유승현



고품격 공연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인천공항은 '아트, 하늘에 펼치다(Art, Spreading the Sky)'란 슬로건 아래 대규모 정기 공연과 상설공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등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펼쳐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아트포트(ArtPort)'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되어 10년째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을 선사하며 문화예술공항으로 발돋움한 인천공항이 올해는 다채로운 장르와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한층 더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인천공항의 문화예술 공연은 기획 공연과 매일 열리는 상설 공연으로 진행되며 클래식, 재즈부터 각종 영화·드라마 OST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재해석한 크로스 오버 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면세지역에서 펼쳐지는 '찾아가는 공연'을 눈여겨보자. '찾아가는 공연'은 다양한 장르의 실력파 아티스트들이 예고 없이 펼치는 게릴라 공연으로, 출국을 앞둔 여행객이라면 누구나 고품격 예술 공연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

위치: 제1여객터미널 및 제2여객터미널 면세지역

시간: 매일 9시~18시 중 총 3회 공연



비행기의 이정표 웨이포인트(Way Point)를 아시나요?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까지 방향 및 거리를 알려주는 표지판을 의미하는 이정표.
비행기의 하늘길을 도와주는 이정표도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비행기에서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웨이포인트(Way Point)에 대해 알아볼게요.

정리. 편집실



하늘 위의 랜드마크 '웨이포인트'

비행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웨이포인트(Way Point)'이다. 웨이포인트는 위도와 경도로 이뤄진 특정한 좌표이며 항로는 이런 특정한 웨이포인트들이 모여 만들어진 길을 의미한다. 조종사는 웨이포인트를 지나가며 관제사와 위치 확인을 위한 의사

소통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웨이포인트의 개수는 수없이 많고, 각각의 고유 명칭을 갖고 있다.

웨이포인트, 왜 만들어졌을까?

비행 중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세계는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사용하여 군사용 인공위성 정보를

민간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항공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방법이 바로 '웨이포인트(Way Point)'라는 제도이다.

항공기와 관제 기구 간 수시로 교신하며 의무적으로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하고 있는 웨이포인트는 글자 그대로 '비행하는 경로에 특정 지점을 정한 후 해당 지점을 지나서 가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상에서와는 다르게 하늘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위도와 경도로 이뤄진 특정 좌표에 고유한 명칭을 붙이고, 그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조종사와 관제사가 위치 확인을 위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웨이포인트의 특별한 고유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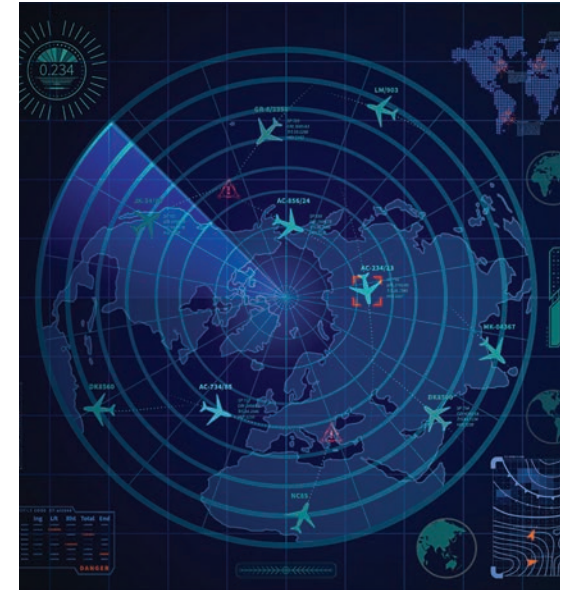
웨이포인트의 명칭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5문자 배정 코드 시스템을 이용해 정하게 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다.

**첫째, 조종사와 관제사가 발음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둘째, 동일 지역 내 다른 웨이포인트의 명칭과 명확히 구별될 것**

셋째, 중복사용 불가

넷째, 과거에 사용했던 명칭을 다시 쓰려면 최소 6개월 후에 사용할 것

그래서 각국의 웨이포인트 담당자들은 쉽고 간결한 명칭을 고안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한다. 위치 정보를 잘 나타내기 위해 해당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만화 캐릭터 스누피가 탄생한 캘리포니아 상공에는 '스누피(SNUPY)', 힙합 뮤지션 에미넴이 태어난 것으로 유명한 디트로이트에는 '에미넴(EMINN)'이란 웨이포인트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적인 명칭들이 존재한다. 아리수(ARISU), 비닐(BINIL), 자두(JADOO), 국수



(GUKSU), 호돌(HODOL), 한큐(HANQU) 등이 바로 우리가 만든 웨이포인트의 이름이다.

항로가 안 겹치는 이유, 간격과 고도

하루에도 수천 대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길에 웨이포인트만으로 비행기가 안 부딪치고 날아가기에는 모자라다. 따라서 지상 도로의 차선이 여러 개인 것처럼 하늘길에도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도록 한다. ①수평 간격을 떨어뜨려 비행기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비행하는 방법과 ②비행 고도를 달리해 날아가는 방법이다. 김포와 제주행 비행기를 예로 들면 제주로 가는 비행기의 경우 비행 방향은 약 190도로 이 경우 비행기들은 짝수 고도(2만 피트, 2만 2000피트 순)로 비행하게 된다. 반면 김포로 가는 비행기는 약 10도로 홀수 고도(2만 1000피트, 2만 3000피트 순)로 비행한다. 이 때문에 같은 웨이포인트를 지나가더라도 부딪치지 않는 것이다. ☺



인천국제공항 개항 21주년 기념식 개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인천국제공항 개항 2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 서울지방항공청 지종철 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 강동석 초대 사장(건교부 전 장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을 비롯해 인천공항 상주기관 관계자, 상주 직원, 여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인천공항은 개항 이후 20여 년 동안 지속적인 인프라 확장, 여객서비스 혁신 등의 양적 및 질적 성장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대표 공항으

로 자리매김 해왔다. 이날 행사에서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공항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으며, ‘인천국제공항 20년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첫해’를 주제로 세레모니를 진행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기획공연에서는 ‘그해 우리는 공항에서 이 노래를 들었지’를 주제로 개항 21주년을 축하하고 코로나로 지친 여객과 상주직원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기 위해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가 출격하여 밀레니엄홀을 가득 채웠다.



국립한글박물관과 한글 특별전시 공동 개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약 2개월간 제1여객터미널 3층 G체크인카운터에서 국립한글박물관과 한글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 ‘제3회 한글실험프로젝트’를 공동 개최했다. ‘한글 실험프로젝트’는 한글을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예술 및 산업콘텐츠로 재조명하는 프로젝트로, 제3회 프로젝트는 2019년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첫 개막 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조기 폐막되었다가 인천공항 개항 2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공항에서의 재개막을 추진하게 되었다. 앞서 해당 전시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 간 프랑스에서 순

환전시를 진행하면서 많은 내외국인 관람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공사는 대한민국의 첫 관문인 인천공항에서 모든 방문객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한글 특별전시를 개최함으로써 한글문화의 독창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등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항공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 전시를 통해 대한민국 고유 콘텐츠를 문화예술적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을 인천공항에서 홍보함으로써 공항을 찾는 여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제6회 인천에어포트 어워드 개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4월 1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제6회 인천에어포트 어워드(ICN Awards)’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인천공항의 운영 혁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우수사업자 및 친절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이번 시상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시상식에서 공사는 2021년 한 해 동안의 업무처리 신속성, 안전관리 및 서비스 개선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 △항공사 △상업시설 △지상조업 △화물항공 △물류기업 총 5개 분야의 우수사업자 14개사에 대한 시상과 함께, 다양한 고객 접점에

서 근무하며 친절한 서비스로 타인의 귀감이 된 ‘인천공항 친절왕’ 9명에 대한 표창을 진행하였다. 항공사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항공업계의 위기에도 운항을 이어가며 여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 아시아나항공 외 5개사 △상업시설 분야에서는 고객만족도가 우수한 (주)신세기디에프 외 3개사 △지상조업 분야에서는 안전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공항 △화물항공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물동량 증대에 기여한 아시아나항공 외 1개사 △물류기업 분야에서는 물류 전문성을 인정받은 코스모항운(주)이 올해의 우수사업자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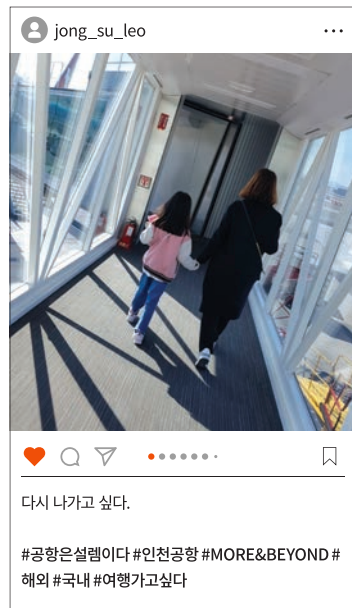


베트남 푸콕 공항에 K-공항 방역 노하우 전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베트남 푸콕 공항(Phu Quoc International Airport)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대응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지난 3월 8일 공사 회의실에서 ‘베트남 푸콕 공항 컨설팅 종료식’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고,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2주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컨설팅의 성공적인 종료를 기념했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11월 하노이 공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천공항 K-공항방역 컨설팅’에 만족한 베트남공항공단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마련됐다. 공사는 △아태지역 최초 국제공항협의회(ACI) 공항방역인증 획득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 △스마트방역 인프라 구축 등 인천공항 방역 우수사례와 공항방역 국제기준을 토대로 자체 개발한 해외공항 컨설팅 프로그램인 ‘안전보건회랑 이니셔티브(Safe Corridor Initiative)’를 기반으로 K-공항방역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발리 공항), 베트남(하노이 및 푸콕 공항), 태국(치앙라이 공항) 등 한국인 관광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공항방역 수출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에 앞장 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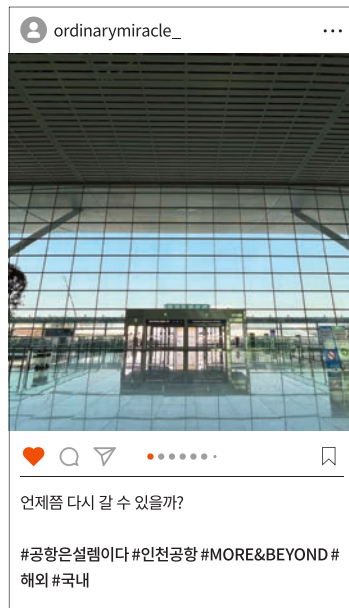
EVENT



공항은

예
술

이다



EPILOGUE

우주 정거장

우리는 하나의 우주입니다. 각자의 우주가 만나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며 삶을 이어가는 동안 신비스러운 일들이 폭발처럼 폭발합니다. 우주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칼 세이건은 그의 저서『코스모스』에서 ‘우주여행은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정현종 시인은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시처럼 시공간을 뛰어넘은 각자의 우주가 만나 인생을 나누는 일은 얼마나 멋지고 신비스러운 일인가요. 삶의 결은 다르지만 저마다의 모습으로 빛나는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공항은 그 거대한 우주가 만나는 정거장입니다. 우주 정거장을 찾은 사람들은 다들 저마다의 사연과 계획을 갖고 공항을 찾았을 것입니다. 잠시 스치는 인연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모험을 찾아 광활한 우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곳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우주 정거장에서는 미움도, 시기도, 좌절도 없습니다. 편견도, 차별도, 계급도 없습니다. 이곳, 공항에서는 오직 꿈과 사랑, 희망만이 존재합니다.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미지의 세계를 향해 티켓을 끊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우주이자, 별처럼 빛나는 당신... 이곳에서 행복을 누리세요.

응모방법

5+6월호 인스타그램 주제는
#공항은예술입니다.

SNS 채널에 #인천공항 #인천공항사보 #공항은예술을 태그해 주시거나,
태그 관련 사진을 편집실 이메일 aseahog@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응모기간 : 2022년 6월 8일까지

